

# 한글본 『최고운전(崔孤雲傳)』의 격조사 양상과 특성

햇토리문고본(1750), 애스턴본(1700?-1800?),  
국립중앙도서관본(1883)을 중심으로

김선효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한국어학 전공  
jsx2@ulive.pccu.edu.tw

I. 머리말

II. 『최고운전』의 한글본 이본

III. 『최고운전』의 격조사 실현 양상

IV. 맺음말

본 논문은 제4회 서태평양 국제학술대회(2015. 6. 13. 중국문화대)와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창립 60주년 학술대회(2016. 6. 25. 정치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이 글은 『최고운전』의 한글본 중에서 소설 내용과 구성이 일치하는 핫토리문고본(1750, 이하 핫토리본), 에스틴본(1700?-1800?), 국립중앙도서관본(1883, 이하 국도본)의 서지적 특성을 간단히 검토한 후 격조사 현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sup>1)</sup> 『최고운전』은 신라 말 최치원의 일생을 허구화한 소설로서 문헌에 따라 ‘최문헌전(崔文獻傳)’, ‘최치원전(崔致遠傳)’, ‘최충전(崔忠傳)’이라고도 하며 한글본(필사본, 활자본)과 한문본(필사본)을 합하여 총32본 이상의 이본이 있다.<sup>2)</sup>

『최고운전』의 초기 연구는 한문본 모태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초창기에는 1656년 이전으로 추정하였으나 『효빈잡기(效顰雜記)』의 ‘최문창전’이 확인되면서 1579년으로 소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동인물총기』(1389)의 한문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그 모태를 1389년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3)</sup> 『최고운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문본과 한글본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 이본 간의 관계를 천착하는 것이었다. 한문본과 한글본은 내용의 초현실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문본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최치원을 소설화하였다면 한글본은 구전되던 전설적 인물인 최치원을 모델로 하여 초현실성을 부각시킨다. 즉, 한문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당에 들어가 공부하여 급제하였고 그 이후 만년의 행적을 다룬 서사물이라면, 한글본은 한문본에다가 설화적 내용을 가미하여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초자연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 부각시켜 허구성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고전소설을 한국어 학습서로 활용하였는데 『최고운전』도

- 
- 1) 이 글에서는 핫토리본 ‘최고운전’, 에스틴본 ‘崔忠傳’, 국도본 ‘崔忠傳’을 통칭하여 ‘최고운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권택경(2006)은 현재까지 한문 필사본 15본, 한글 필사본 8본, 한글 활자본 8본 등 총 31본의 이본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본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권택경, 『최고운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16쪽). 에스틴본은 민영대 소장본과 동일본이므로 제외하더라도 핫토리본과 오구라문고본이 그 후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이본 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구라문고본은 후쿠이 레이(2011)의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어 다른 이본 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후쿠이 레이, 「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 『규장각』 39, 2011, 241-376쪽).
  - 3) 정병욱, 「최문헌전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홍성사, 1955·1979);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 담고」, 『고소설연구』 4(1998), 4-15쪽; 박일용,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2010), 85-115쪽.

고급과정 교재 중의 하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할 핫토리본과 애스턴본도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서로 사용된 이본들이며 국도본도 도쿄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sup>4)</sup> 대마번(對馬藩)의 통사였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는 통사양성소에서부터 ‘숙향전’, ‘최고운전’, ‘임경업전’ 등을 주요 학습자료로 활용하였고 도쿄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 교과과정에서는 ‘최고운전’을 상급 교재로도 사용하였다.<sup>5)</sup>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이본들이 필사되는 동기가 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도 활자본이 지속적으로 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특히 핫토리본, 애스턴본과 같은 필사본은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도 병기되거나 기록되어 있어서 그 당대의 두 언어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sup>6)</sup>

그러나 국어학적 관점에서 『최고운전』은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에 부분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으나 자료적 가치에 비해 국어학적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편이다.<sup>7)</sup> 국어학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의 또한 클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이본 간의 관계까지 검토할 수 없지만 국어학적 논의가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내외 이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설의 내용과 구성이 일치하는 한글 필사본(핫토리본, 애스턴본)과 한글 활자본(국도본)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근대국어의 격조사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국어는 조사가 통시적으로 격변하는 시기이며 문헌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므로 『최고운전』에서는

- 
- 4) 활자본인 국도본은 도쿄외국어대학교도서관본과 동일본이다. 동일 활자본일 경우 국도본을 대표 이본으로 사용한다.
  - 5) 이강민, 「개화기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일본학보』 67(2006), 65-80쪽; 정승혜, 「일본에서의 한어 교육과 교재에 대한 개관」, 『이중언어학』 30(2006), 335-353쪽; 정병철,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 『韓國文化』 35(2005), 27-55쪽; 편무진,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 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 표기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43(2009), 83-104쪽 등.
  - 6) 최근에 필자는 도쿄대학교 후쿠이 레이 교수로부터 ‘오구라문고본’(한글 필사본)을 소개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차기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7) 岸田文隆, 「早稻田大學服部文庫所藏の「朝鮮語譯」について」, 『朝鮮學報』 199・200(2006), 1-35쪽; 정승혜, 「와세다대학 핫토리문고 소장 〈조선어역〉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40(2009), 153-183쪽; 박진완, 「『朝鮮語譯』의 모음 표기 고찰」, 『국어학』 48(2010a), 131-155쪽.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격조사 양상은 세 이본의 원시말뭉치를 구축한 후 Uniconc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동할 것이다.<sup>8)</sup> II장에서는 『최고운전』의 한글 필사본인 핫토리본과 에스틴본, 활자본인 국도본을 각각 간략히 소개하고, III장에서 격조사의 현상과 특성을 검토한 뒤에 IV장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최고운전』의 한글본 이본

### 1. 핫토리문고본(1750) 『최고운전』

핫토리본(1750) 『최고운전』은 『조선어역(朝鮮語譯)』 권3에 수록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이다. 『조선어역』(1750)은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 교수에 의해 문헌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학계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서, 핫토리 난가쿠(服部南郭)의 자필 필사본이며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에 관한 대화편 권1과 권2, 소설 『최고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의 집필 시기는 대화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문제 내용을 볼 때 『인어대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sup>9)</sup>

『조선어역』의 표기 방식은 권1, 권2, 권3이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다. 권1의 표기 방식은 그림1과 같이 국어를 가타카나로 전사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역 일본어를 제시하는 가나(假名) 구조이다. 즉 권1에서는 실제 한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의 발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권2는 그림2와 같이 국한 혼용문과 그에 대응하는 대역 일본어가 있는 국한문 구조이며 권3은 그림3과 같이 국어로 소설의 내용을 전사하고 같은 행 오른쪽에 작고 얇은 필체로 대역 일본어가 있는 구조이다. 권3 『최고운전』은 한 행에 국어와 대역 일본어가 모두 전사되어 있지만 국어가 더 굵고 크며 선명하게 전사되어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역 일본어를 병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8) 핫토리본 원시말뭉치는 ‘〈조선어역〉 프로젝트’(연구 책임자: 기시다 후미타카 교수, 오사카대학교)에서 구축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기시다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9) 岸田文隆, 앞의 논문, 1-35쪽; 정승혜, 앞의 논문(2009), 153-18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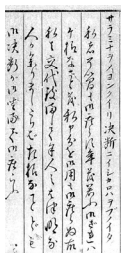


그림1-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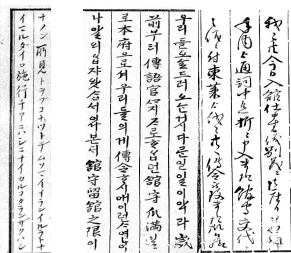


그림2-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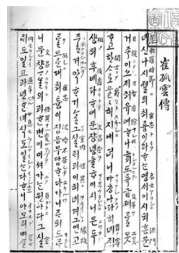


그림3-권3

그림3은 이 글에서 논의할 『최고운전』의 첫 페이지로서 최고운의 아버지인 최충을 간략히 소개하는 부분이다. 첫 문장의 일부를 제시하면 (1)과 같다.

(1) 핫토리본 『최고운전』

- ㄱ. 네 신나 시절의 최룡이라 호는 명식 이시되 흥문거족이오 지죄 유어하나 늙도록 급계를 못하고 한스로 울>히 지내더니 마츄 나라히 네 지상의 후예라 호여 문×정○창녕을 호이시니<sup>10)</sup>
- ㄴ. むかし 新羅時節に 崔忠といふ 名士ありしに 洪門巨族にして 才智有余なれとも としよるまで 及第を えせず 閑士にして 鬱々とすぎしに をりふしくにの昔の 宰相の 後裔なりとて 文昌命を >せつけられしにわか

(1ㄱ)은 한글로 필사한 내용의 일부이며 (1ㄴ)은 한글 옆에 대역한 일본어이다. (1)에 의하면 국어를 우선 전사한 뒤에 일본어를 대역한 것으로 추정되며 근대국어와 에도시대 일본어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애스턴본(1700?-1800?) 『최충전(崔忠傳)』

애스턴본은 민영대본과 동일한 이본으로서 한글 필사본이며 현재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에 소장되어 있다.<sup>11)</sup> 애스

10) ‘울>히’의 ‘>’는 선행 음절의 반복 표시이며, ‘문×정○창녕’은 원문에는 ‘문장녕’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이본과 한자를 근거로 ‘문창녕’이 정확함을 표시한 것이다. 필사본은 이와 같은 오기가 간혹 확인되므로 뒤 예문에도 오기가 확인될 때 동일하게 표기한다.

11) 민영대의 논문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도서관에서 입수한 복사본이며 스킨랜드(W. E. Skellend)의 『고대소설』에서 원본이 러시아의 동방연구소에 있음을 밝힌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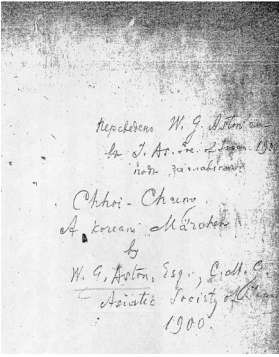


그림4-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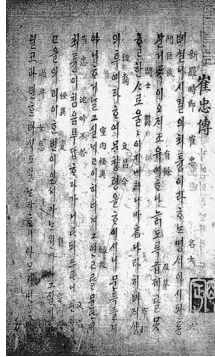


그림5-『최충전』 1a

턴(William George Aston, 1841-1911)은 일본어와 조선어를 연구한 외교관 출신의 영국인 학자로서 한국어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최충전』도 그중의 하나로서 총 86면, 각 9행, 세로로 쓰였으며, 일부 단어의 오른쪽에 한자나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다. 그림4는 애스턴이 1900년에 최충전을 ‘Chhoi-chhung: A Corean Märchen’으로 영역(英譯)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며<sup>12)</sup>, 그림5가 소설의 첫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애스턴은 1900년 이전에 이것을 이미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소설의 내용을 핫토리본과 비교하기 위해 그림5의 첫 문장을 제시하면 (2)와 같다.

(2) 네 살나시절(新羅時節)에 최통(崔忠)이라 호는 명식(名士) 이시되 홍문거족(洪門巨族)이오 지조 유여(有餘)하나 늙도록 급제(及第)를 못하고 한스(閑士)로 울>(鬱鬱)이 재내더니 마츄 나라히 네 직상(宰相)의 후에(後裔)라 하여 문창령(文昌令)을 하시니

핫토리본 (1)과 (2)의 문장만 비교해본다면 두 자료가 일부 음운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장 구조, 어휘, 조사나 어미 표기 등 대부분 유사하다. 이러한 표기적 유사성은 작품 전체에 적용된다. 이것은 두 필사본이 동 계열의 저본을 참고하였거나

민영대본이 애스턴본보다 겉표지가 더 잘 보존되어 있는 듯하다. 민영대, 「崔忠傳 이본연구」, 『한남어문학』 7·8(1982).

12) 박진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애스턴 문고의 한글 자료」, 『국어학』 46(2010b), 200쪽, 218쪽 참조.



그림6-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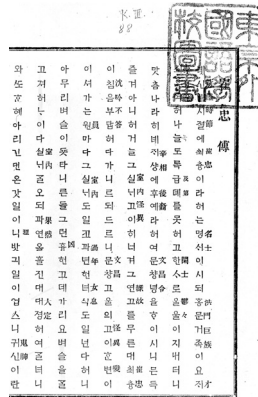


그림7-『최충전』 1a

둘 중 하나가 저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이본의 소설 제목이 핫토리본에서는 ‘최고운전’, 애스턴본에서는 ‘최충전’으로 명기되어 있다. 소설명이 다르다고 하여 두 이본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일 저본을 필사하였다면 두 이본의 소설명이 다를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두 이본은 동 계열의 저본을 참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국립중앙도서관본(1883) 『최충전』

국도본 『최충전』(1883)은 한글 활자본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도쿄의 국어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의 ‘대조선국기원 사백구십이년(大朝鮮國紀元四百九十二年)’의 연기(年紀)와 ‘계미팔월인행(癸未八月印行)’의 기록을 통해 1883년 8월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활자본 『최충전』은 총 66면, 각 10행, 세로로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단어에 한자를 병기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소설 내용은 상기 두 필사본 자료와 동일하다. 그림6은 겉표지이며 그림7은 첫 페이지에 속한다.

두 이본과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7의 첫 부분을 제시하면 (3)과 같다.

(3) 네 신나시절(新羅時節)에 최충(崔忠)이라 허는 명사(名士) 이시되 홍문거족(洪門巨族)이요 지좌 유여(才操有餘)하나 늘도록 급제(及第)를 못하고 한사(閑士)

로 울울(鬱鬱)이 지내더니 맞춤 나라히 네 직상(宰相)에 후예(後裔)라 허어  
문창녕(文昌寧)을 흐이시니

(3)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1-7) 및 (2)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핫토리본, 에스틴본, 국도본은 일부 음운이나 어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소설의 구성이나 내용은 동일하며 이러한 양상은 소설 전체에서 확인된다.<sup>13)</sup> 이상과 같이 세 이본은 소설 내용과 구성은 같지만 음운, 어휘, 형태적 측면에서 부분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형태음운론적 양상은 국어의 언어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최고운전』 세 이본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격조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 Ⅲ. 『최고운전』의 격조사 실현 양상

#### 1. 주격조사

근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중세국어의 ‘1, 이, Ø’ 외에 ‘가, 겨오셔, 썩셔, 썩셔가’ 새롭게 출현한 것이 특징이다.<sup>14)</sup> 국어의 음운체계 변화로 주격조사의 상보적 분포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주격조사가 출현하면서 근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대의 이러한 현상을 감안해본다면 『최고운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최고운전』의 주격조사로 어떤 표지가 실현되는지 확인해보자.

첫째,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1, 이, Ø’가 확인된다. (4)의 ‘1’, (5)의

13) 한 심사자는 (3)의 동사 ‘허-’가 19세기 중반 이후 중부 방언을 반영한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음운 및 어휘 양상은 추후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14) 정광, 「주격 ‘가’의 발달에 대하여」, 『우리문화』 2(1968); 송민,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1988), 25-34쪽; 홍윤표, 『近代國語研究(Ⅰ)』(태학사, 1994), 274-275쪽; 이태영, 「국어 격조사의 변화」, 『국어사연구』(태학사, 1997); 이경희, 「근대국어의 격조사」, 『근대국어의 이해』(박이정, 1998); 김현주, 「주격표지 ‘께서’의 형성에 대하여」, 『어학연구』 41권 4호(2013), 133-158쪽; 고광모, 「주격조사 ‘가’의 발달」, 『언어학』 68호(2014), 93-118쪽.



‘이’, (6)의 ‘∅’에서와 같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실현된다. 핫토리본의 (4ㄱ) ‘우매’는 그 뒤에 한자가 병기되지 않았으나 (4ㄴ)과 (4ㄷ)의 ‘우마 1’를 통해 주격 ‘1’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예에서도 확인된다. 즉 주격 ‘1, 이’와 영형태 ‘∅’를 확인할 수 있다.

- (4) ㄱ. 왕<sub>너</sub>하<sub>는</sub> 우매 피<sub>히</sub>여 가고 (往來せる 牛馬 避てゆき)(핫 6a)  
 ㄴ. 왕<sub>너</sub>(往來)하<sub>는</sub> 우마(牛馬)1 피(避)히<sub>여</sub> 가고(에 6a)  
 ㄷ. 왕<sub>너</sub>(往來)하<sub>는</sub> 우마(牛馬)1 피(避)히<sub>여</sub> 가고(국 4b)
- (5) ㄱ. 조정이 못<sub>츄</sub>내 마<sub>라</sub>주지 아니<sub>히</sub>면(朝廷ついに かへたまわすば なにと 致すべきや)(핫 2a)  
 ㄴ. 조정(朝廷)이 못<sub>츄</sub>내 마<sub>라</sub>주지 아니<sub>히</sub>면(에 1b)  
 ㄷ. 조정(朝廷)이 못<sub>츄</sub>내 마<sub>라</sub>주지 아니<sub>히</sub>면(국 1b)
- (6) ㄱ. 그 실<sub>넛</sub>이 괴<sub>이</sub>히 너<sub>겨</sub>(その 室内 怪異に ぞもい)(핫 1a)  
 ㄴ. 그 실<sub>넛</sub>(室内) 괴<sub>이</sub>(怪異)히 너<sub>겨</sub>(에 1a)  
 ㄷ. 그 실<sub>넛</sub>(室内) 괴<sub>이</sub>(怪異)히 너<sub>겨</sub>(국 1a)

둘째, 조사 ‘씨서’가 핫토리본에서 1회 확인된다. ‘씨서/씨셔’는 ‘에’, ‘에서’, ‘의게서’, ‘로써’와 더불어 중세국어에서 탈격(ablative)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씨서/씨셔’는 [+유정, +존대], ‘의게서’는 [+유정, -존대], ‘에서’는 [-유정의 선행 명사구를 요구하였다. ‘씨서/씨셔’는 근대국어 이후 점점 감소되다가 일부 자료에서 주격으로도 사용되었으나 주격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개화기 이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씨서’는 (7ㄱ)에서와 같이 핫토리본에서 1회 확인되고 (7ㄴ)과 (7ㄷ)에서는 영형태 ‘∅’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 (7) ㄱ. 쇼국의 지식 잇는 줄을 씨러 (황제)씨셔<sup>5)</sup> 블러스오니(小國才子 あることを <忌て>皇帝より よびたまふにより)(핫 25b)  
 ㄴ. 황<sub>데</sub>(皇帝) 부르<sub>신</sub> 일<sub>이</sub>오니(에 25b)  
 ㄷ. 쇼국(小國)에 지식(才士)이<sub>시</sub>를 씨러 황<sub>데</sub>(皇帝) 부르<sub>신</sub> 일<sub>이</sub>오니(국 19a)

근대국어의 ‘씨서’는 탈격에서 주격으로 변하는 시기였으므로 (7ㄱ)의

15) 필사자의 실수로 한국어 ‘황제’의 표기가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일본어 번역문에 ‘皇帝’가 필사되어 있고, 바로 뒤 문장의 ‘황제 일경 불모히여(25b)’뿐 아니라 다른 이본을 참고해볼 때 ‘황제’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씩서’가 탈격인지 주격인지 모호하다. 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좁힐 수 있다.

첫째, ‘씩서’와 ‘より’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7ㄱ)의 ‘황제씩서 블러스오니’는 ‘황제께서 불렀사오니’와 ‘황제에게 불리었사오니’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본어의 ‘より’를 참고한다면 중의적인 해석이 명확해질 수도 있다. ‘より’는 ‘비교의 기준, 출발점, 경유의 장소, 수단’ 등 광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시대 이후 세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비교의 기준’의 의미로 축소되고 출발점은 ‘から’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16)</sup>, 반면에 ‘より’와 ‘から’가 모두 주어를 가리키는 용법 또는 주격 조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7)</sup> 즉 ‘より, から’의 선행 명사구가 동작주로 기능하면 주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후자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より’도 ‘씩서’처럼 1차적 탈격 기능과 2차적 주격 기능을 모두 담당하므로 ‘씩서’의 격 기능을 일본어 번역본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핫토리본의 일본어는 한국어의 번역문이므로 ‘より’가 ‘씩서’의 격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둘째,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7ㄱ)의 ‘블러스오니’의 기본형이 능동사 ‘브르다(부르다)’이면 동사 자질에 근거하여 ‘씩서’가 주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세국어의 활용형은 ‘브르다(부르다)’가 기본형이면 ‘블러스오니’로 실현되며 ‘블리다’가 기본형이면 ‘블러스오니’로 실현된다. (7ㄱ)에서는 ‘블러스오니’로 실현되므로 능동사의 활용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핫토리본에서는 피동형 선어말어미와 능동형

---

16) 此島正年(1973)는 고대 일본어의 ‘より’가 ‘よゆ, ゆり’와 같이 ‘비교의 기준, 출발점’의 두 의미를 담당하였으나 나라시대 이후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이며(此島正年, 『國語助詞の研究』, 東京: 櫻楓社, 1973, 100-102쪽), 橋本進吉(1969)는 나라시대 이전의 ‘より’가 ‘비교의 기준[我よりもまづしき人(萬5, 892)], 동작 작용이 일어나는 기점을 표시[시간, 공간 등의 기점][あすよりはつぎてきこえむはととぎす(萬18, 4069)], 行くわたる 등 이동동사에서 경유하는 장소[古にこふる鳥かもゆづるはの三井のうへより鳴きわたり行く(萬1, 22)],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한 수단[人妻の馬よりゆくに(萬13, 3313)] 등으로 쓰였다고 한다(橋本進吉, 『助詞, 助動詞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69, 149-153쪽).

17) 石垣謙二, 『助詞の歴史的研究』(岩波書店, 1955), 176쪽; 土井忠生, 『日本大文典』(三省堂, 1955), 502쪽; 白井純, 「一 キリシタン文献を中心として」, 『國語學』 52卷 3號(2001), 1-14쪽.

18) 기독교종교문헌류에서 ‘より’가 동작주의 주격으로 469회로 실현되지만 ‘から’는 0회 확인되었다.

선어말어미가 변별적으로 사용되어 나타나므로 ‘블러스오니’의 기본형을 ‘브르다’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씨셔’의 선행명사구는 ‘브르다’의 동작주로 해석되므로 ‘씨셔’를 주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9)</sup>

(7ㄴ)과 (7ㄷ)에서 주격 ‘씨셔’가 실현되지 않은 것도 근대국어 ‘씨셔’의 격 기능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씨셔’는 탈격과 주격을 모두 담당하였으나 근대국어에 이르러 탈격의 기능이 급감하면서 19세기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다가 개화기 이후 주격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격 기능의 변화가 (7ㄴ)과 (7ㄷ)에서 ‘씨셔’의 적극적 실현을 방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주격 ‘씨셔’가 『병자일기』, 『첩해신어』의 왜학서에서만 일부 확인되었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sup>20)</sup> 즉 (7ㄴ)과 (7ㄷ)에서 격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된 것은 ‘씨셔’의 과도기적 격 기능과 밀접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주격 ‘겨오셔’의 유형으로 ‘겨오셔, 계오셔, 쎄오셔’의 형태가 확인된다.<sup>21)</sup> (8ㄱ)과 (9ㄱ)에서는 ‘겨오셔’가 사용되었고, (8ㄴ), (8ㄷ)과 (9ㄴ)에서는 ‘계오셔’, (9ㄷ)에서는 ‘쎄오셔’의 형태가 확인된다. ‘씨셔’보다 ‘겨오셔’가 근대국어 자료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최고운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8) ㄱ. 울며 고하되 실린 마노라겨오셔 풍우 등의 흘연 가신 ㅁ들 모로오니(하 2b)

(ないて 告げるは をくさま 風雨の 中に 忽然と ゆきたまいしところを

19) (1)은 능동형이며 (2)는 피동형의 활용형이다.

(1) ㄱ. 萬歲를 브르스븀니 <월인천강지곡 25>

ㄴ. 쇠라 블러도 <금강경삼가해二 55>

(2) ㄱ. 흘 락 블료를 보라 <두시언해초 15, 7>

ㄴ. 블러 마치는 恩惠 | 죽조 니르니 <두시언해초 8, 9>

20) 이태영(1991)에서는 중세국어의 ‘씨셔’는 ‘-에게서, -로부터’의 탈격의 기능을 하다가 19세기 『성경직권』에 와서 주격의 기능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이태영, 「근대국어 ‘씨셔, 거셔’의 변천 과정」, 『주시경학보』 8, 1991, 706쪽), 김현주(2013)는 『병자일기』, 『첩해신어』 왜학서에서 주격이 확인된다고 한다.

21) 여기에서 ‘겨오셔’를 대표형으로 정한 것은 임의적이다. ‘겨오셔, 겨읍셔, 거셔, 계오셔, 계셔, 쎄오셔’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며 이들이 동일한 기본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겨시다’의 활용형(홍윤표, 「근대국어의 통사론」, 『동양학』 2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275쪽), ‘겨읍시’의 활용형(김현주, 앞의 논문, 146쪽) 등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독립신문』이나 『매일신문』에서는 ‘씨읍셔, 씨오셔’도 등장한다.

ぞんぜざるゆへ)

- ㄴ. 마노라계오서 풍우(風雨) 중(中)의 홀연(忽然) 가신 곳들 모르오니(에 2b)
- ㄷ. 울며 고(告)히되 마노라계오서 풍우(風雨) 중(中)에 홀연(忽然) 가신 곳들 모르오니(국 2a)
- (9) ㄱ. 부친(父親)계오서 당츨 화을 보시미 슈유간의 잇스오니(父親さまの 將に禍を みたまふこと 須臾間に ござりまするゆえに)(하 3:20b)
- ㄴ. 부친(父親)계오서 장츨 화(禍)를 보시미 슈유(須臾) 간(間)의 잇스오니(에 20b)
- ㄷ. 부친(父親)계오서 장츨(將次) 화(禍)를 슈유(須臾) 간의 잇스오니(국 15b)

그러나 근대국어에 출현한 주격 '가'는 『최고운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주격조사 '가'는 17세기 중엽부터 선행 체언의 말씀이 궤 모음 뒤에서만 실현되다가 18세기부터는 비궤 모음 아래에서도 실현되었으므로, (6)의 '실' 또는 '실' 뒤에서 주격 '가'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격 '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최고운전』의 주격조사 양상을 살펴본 결과, 주격조사 '이, 이, Ø' 외에 근대국어에 형성된 '씨서, 겨오서, 계오서'는 확인되었으나 주격조사 '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주격 '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당대의 언어 현상이라기보다 저본의 영향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sup>22)</sup>

## 2. 관형격조사

근대국어의 관형격조사의 대표형은 '의'이다. 중세국어의 관형격조사 '이, 의, 사'는 음운론적 환경과 의미론적 환경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였으나 근대국어에 이르면 변별성이 약화되면서 관형격조사의 대표형으로 '의'가 자리를 잡는다. 물론 관형격 '에'가 일부 자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형격 '에'가 쓰인 환경은 중세국어 '엇'의 환경과 유사하거나 19세기 후반 중부 방언의 일부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을 보인다.<sup>23)</sup> 그러나 『최고운전』에서는 핫토리본 (10ㄱ)과 (11ㄱ), 애스턴본

22) 저본과의 상관성은 자료의 한계로 여기에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23) 허웅, 『16세기 우리 옛말본』(샘문화사, 1989), 96쪽; 이승욱, 『국어 문법체계의 史的 研究』(일조각, 1973), 312쪽; 최전승, 「19세기 후반 전라방언의 특질 몇 가지에 대한

(10ㄴ)과 (11ㄴ)의 관형격조사는 모두 ‘의’로 실현되었으나 국도본 (10ㄷ)과 (11ㄷ)에서는 ‘에’가 적극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 (10) ㄱ. 석 달만의 금제의 변을 만나시나(三ヶ月ぶりに 金猪の 變に あいければ)  
(훗 5b)  
 ㄴ. 석 달만의 금제의 변을 만나시나(애 5a)  
 ㄷ. 석 달만의 금제(金猪)에 변(變)을 만났시나(국 4a)
- (11) ㄱ. 부인 왈 늬의 우×울○움을 어려와홀진대 칭병호고(ひとの 笑わん ことを 氣毒にをもわば 稱病して)(훗 7b)  
 ㄴ. 부인 왈 늬의 우음을 두려[어려워]홀진덕 칭[칭]병(稱病)호시고(애 7a)  
 ㄷ. 부인(夫人) 왈(曰) 늬에 우음을 어려워홀진대 칭병(稱病)호시고(국 5b)

물론 국도본에서 ‘엇던 사람의 자식이며’(11b)처럼 ‘의’도 사용하지만 ‘에’도 적극 실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근대국어의 관형격 대표형은 ‘의’로 이미 굳어져 있었다.<sup>24)</sup> 근대국어 자료에서 조사 ‘의’와 ‘에’가 형태적으로 혼용된 것은 부사격에서 활발히 나타난 현상이며 관형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도본처럼 관형격 표지가 ‘의’ 또는 ‘에’로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국도본의 관형격 ‘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과도기성이 표기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것과, 둘째는 중세국어 ‘옛’과 밀접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승희(2009)의 논의처럼 중세국어 ‘NP1옛 NP2’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국도본 (10ㄷ)과 (11ㄷ)의 용례도 ‘옛’의 한 유형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도본에서의 관형격 ‘에’는 후자보다 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필사본의 관형격 대표형 ‘의’가 활자본에서 ‘에’로 적극 실현되는 것을 중세국어의 영향으로

대조적 고찰], 『한민족어문학』 41(2002), 27-80쪽; 이승희, 「중세국어 ‘NP1옛 NP2’ 구성의 의미 유형에 대한 고찰», 『국어학』 54(2009), 197-224쪽; 김선효, 「근대국어의 조사 ‘의’의 분포와 기능», 『어문논집』 46(2011), 141-162쪽.

24) 김선효(2011)는 『朴通事新釋諺解』의 관형격 ‘에’가 중세국어 ‘옛’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예를 제시하였다(김선효, 위의 논문, 2011, 각주 9). 그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田禾 1 다 겹겨 못치엿고 村座 人家에 房屋 牆壁이 太半 다 물에 질러엿느니라(朴新 1:09b)  
 나. 닐러시되 前世에 因果를 알려 홀진대(朴新1:31a)  
 다. 보자 여웃 獬皮에 每張에 서 돈 식 호면(朴新1:33a)  
 라. 金 糖관 쇠 즈르에 속에 白沙蜜 담은 거시여(朴新1:40b)

처리하기에는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과도기성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sup>25)</sup>

### 3. 목적격조사

근대국어의 목적격조사는 ‘을/를’이 대표형으로 쓰인다. 중세국어의 ‘을/을, 툄/를’은 음운론적 이형태들이지만 근대국어에 이르면 ‘을/를’이 대표형으로 쓰인다. 그러나 핫토리본에서는 음운론적 환경과 상관없이 작위적으로 ‘을’과 ‘를’만 사용하고 ‘을’과 ‘를’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12ㄱ), (13ㄱ), (14ㄱ)에서와 같이 음운론적 환경과 무관하게 작위적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사의 실현이 선행 음절의 음운론적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택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표기 양상은 애스턴본과 국도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애스턴본은 (12ㄴ), (13ㄴ), (14ㄴ)과 같이 선행 체언의 종성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으로 끝나면 ‘를’로 구별하고 있으며 국도본은 (12ㄷ), (13ㄷ), (14ㄷ)과 같이 ‘을’과 ‘를’로 변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12) ㄱ. 치원의 넘지를 아는 고로 오래 머무러 둘 거교을 못히여(致遠 立志を しりしゆえひさしくとゞめをく計較をえせずして)( 핫 41a)  
 ㄴ. 치원(×知○致遠)의 넘지(立志)를 아는 고로 오래 머무러 둘 계(計)교를 못히여(애 41b)  
 ㄷ. 치원(致遠)에 넘지(立志)를 아는 고로 오래 머무러 둘 계교(計較)를 못히여 (국 32a)
- (13) ㄱ. 금슬이 ×툄○툄히여 일시를 써나지 못히여(瑟琴 重して 一時も はなれが たしとや)( 핫 2a)  
 ㄴ. 금슬(琴瑟)이 중(重)히여 일시(一時)를 써나지 못히는지라(애 2a)  
 ㄷ. 금슬(琴瑟)이 중(重)히여 일시(一時)를 써나지 못히는지라(국 2a)
- (14) ㄱ. 하리를 분부히여 홍스를 거두어 드리라 히여(下吏に 分付して 紅絲を やういしさし あげよとて) ( 핫 2b)  
 ㄴ. 하리(下吏)를 분부(分付)히여 홍스(紅絲)를 거두워 드리라 히여(애 2b)  
 ㄷ. 하리(下吏)를 분부(分付)히여 홍스(紅絲)를 거두어 드리라 히여(국 2a)
- (15) ㄱ. 문×장○창녕을 히이시니(文昌命を を > せつけられしに)( 핫 1a)

25) 김선효, 「일본 근대 한어 자료에서의 부사격 ‘의’의 과잉 양상과 그 요인」, 『국어학』 67(2013), 223-250쪽.

- ㄴ. 문창령(文昌令)을 히이니(애 1a)
  - ㄷ. 문창녕(文昌令)을 히이니(국 1a)
- (16) ㄱ.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공사를 펼치고(大驚失色して 公事を さしをき)(하 3a)
- ㄴ.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공사를 펼치고(애 3a)
  - ㄷ.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공사(公事)를 펼치고(국 3a)
- (17) ㄱ. 벼슬을 끌고져(やくを かわりたく)(하 1b)
- ㄴ. 벼슬을 끌고져(애 1b)
  - ㄷ. 벼슬을 끌고져(국 1a)

목적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참고해본다면 핫토리본은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을’과 ‘를’을 사용하였고 국도본에 이르러 선행 체언의 마지막 음절 환경에 따라 규칙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보격조사

보격조사는 중세국어에서 ‘이, 이, Ø’가 사용되었고 근대국어에 이르면 보격조사 ‘가’도 적극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최고운전』에서는 ‘이, 이, Ø’만 확인되고 ‘가’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국도본에서 보격조사 ‘에’가 사용되는 특이한 현상이 확인된다. (18)에서 (20)을 살펴보면 핫토리본과 애스턴본에서는 보격 ‘이’가 사용되었으나 국도본 (18ㄷ), (19ㄷ), (20ㄷ)에서는 ‘에’로 실현된다. 이것은 조사 ‘에’의 통사적 기능이 확대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 추정된다.

- (18) ㄱ. 문득 변하여 빅압이 되어 코끼리 코의 감기니(變して くちなわと なり 大きさのはなに まといしに)(하 36a)
- ㄴ. 문득 변(變)하여 빅압이 되어 코끼리 코의 감기니(カキツイテ 주석)(애 36a)
  - ㄷ. 문득 변하여 빅압에 되어 코끼리 코에 감기니(국 29a)
- (19) ㄱ. 부친은 나라의 유공(有功)은 ×똥○똥신이 되시고(父親は くのに 有功なる 忠臣と なりて)(하 21a)
- ㄴ. 부친(父親)은 나라의 유공(有功)은 똥신(忠臣)이 되시고(애 20b)
  - ㄷ. 부친은 나라에 유공(有功) 똥신에 되시고(국 18a)
- (20) ㄱ. 즉시 변하여 황룡이 되어(即時 變して 黃龍と なり)(하 32b)
- ㄴ. 즉시(即時) 변(變)하여 황룡(黃龍)이 되어(애 32b)

ㄷ. 즉시(即時) 변(變)하여 황룡(黃龍)에 되어(국 26a)

먼저 국도본의 모든 보격조사 자리에 조사 ‘에’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21)과 (22)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이 되다’ 구문도 여전히 확인된다. 무엇보다 ‘N에 되다’ 구문은 중세국어의 문법 구조가 아니므로 소급 적용할 대상도 아니다.

(21) ㄱ. 일야간의 소년 녀지 되어(一夜間に 少年の 女子と なり)(화 42a)

ㄴ. 일야간(一夜間)의 도루 소년(少年) 녀즈(女子) 되어(애 42b)

ㄷ. 일야간(一夜間)에 도루 소년(少年) 녀지(女子) 되어(국 32b)

(22) ㄱ. 즉시 변하여 빅얍이 되어(即時 變して へびと なり)(화 31a)

ㄴ. 즉시(即時) 변(變)하여 빅얍이 되어(애 31a)

ㄷ. 즉시 변하여 빅얍이 되어(국 24a)

국도본의 ‘N에 되다’ 구문은 일본어 ‘Nと なる’의 간접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なる’는 조사 ‘と’와 결합하여 ‘Nと なる’로만 실현되므로 이 구조가 ‘N에 되다’ 구문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고운전』이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일본어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N에 되다’ 구문은 국어의 통사 구조가 아니므로 이런 의혹은 국도본 이후의 자료가 발견된다면 쉽게 해결되리라 예상된다.

## 5. 부사격조사 ‘에’와 ‘로셔’

### 1) 부사격조사 ‘에’

중세국어의 부사격조사는 음운론적 환경과 특이치격어에 따라 ‘에/애/예, 이/의’가 사용되었고 의미적으로는 ‘장소, 시간, 원인, 비교, 지향점’ 등을 나타낸다.<sup>26)</sup> 그러나 근대국어에 이르면 음운론적 이형태들이 변별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특이치격어도 거의 소멸하면서 부사격 대표형으로 ‘에’가 정착되지만 의미적 범주는 중세국어의 궤를 이어 사용되었다.

근대국어의 부사격조사 대표형은 ‘에’이지만 문헌에 따라, 지역에 따라

26)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학연사, 1990), 180-183쪽;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집문당, 2010), 95-96쪽.



‘에’와 ‘의’를 혼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대표형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혼용 양상은 근대국어의 형태음운론적 과도기성에 의한 것으로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은 거의 수그러졌다. 『최고운전』에서도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23) ㄱ. 그딛 이제 닷새 길을 가면 물<sup>ㅅ</sup>의 고운 계집이 이셔 왼손의 거울을 ×취(○취고 올<sup>ㅅ</sup>흔손의 옥을 취고 안자실 거시니 그 앞<sup>ㅅ</sup>피 나아가 공경<sup>ㅎ</sup>여 절<sup>ㅎ</sup>고 정성을 보면 그딛의 일을 즈셔이 마르티리라(하 34b)
- (そなた いま 五日 みを ゆかば すいへんに うつくしき をんな ありて ひとりの てに かゝみを にぎり みきの てに 玉を にぎりて ぎして あるべき ゆえ そのまゑに ゆき 恭敬して れいを なし 精誠を みせば そなたの ことを つまびらかに をしゆべし)
- ㄴ. 그딛 이제 닷새 길을 가면 물<sup>ㅅ</sup>의 고운 계집이 이셔 왼손의 거울을 취고 올<sup>ㅅ</sup>흔손의 옥(玉)을 취고 안자실 거시니 그 앞<sup>ㅅ</sup>피 나아가 공경(恭敬)혀여 절<sup>ㅎ</sup>고 정성(精誠)으로 비<sup>ㅅ</sup>면 그딛의 일을 즈세(仔細)이 가랏치리라(애 34a)
- ㄷ. 그딛 이제 닷새 길을 가면 물<sup>ㅅ</sup>에 고운 계집이 이셔 왼손에 거울을 취고 올<sup>ㅅ</sup>흔손에 옥(玉)을 취고 안자실 거시니 그 앞<sup>ㅅ</sup>피 나아가 공경(恭敬)혀여 절<sup>ㅎ</sup>고 정성(精誠)을 비<sup>ㅅ</sup>면 그딛에 일을 즈세(仔細)이 마르티리라(국 27b)

(23ㄱ)의 핫토리본과 (23ㄴ)의 에스틴본은 관형격과 부사격의 대표형으로 모두 ‘의’를 사용하고, (23ㄷ)의 국도본은 ‘에’를 두 격조사의 대표형으로 사용하였다. 조사 ‘의’와 ‘에’의 형태적 혼용 양상은 17세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자료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변별성이 없는 자료가 많다. 그것은 음운체계 및 문법 구조가 변하는 근대국어의 과도기성이 조사 ‘의’와 ‘에’의 격 표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sup>27)</sup> 조사 ‘의’와 ‘에’가 형태음운론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조선어역』 권1에서는 부사격조사가 일본어로 ‘ウイ’(의)가 아닌 ‘오’(에)로 전사되었으나 권2의 한국어 전사 자료에서는 부사격이 대부분 ‘의’로 표기되어 있다.<sup>28)</sup> 이렇듯 격조사 ‘의’와 ‘에’의 형태음운론적

27) 김선효, 앞의 논문(2013) 참조.

28) 『조선어역』에 대한 음운론적 논의는 박진완, 앞의 논문(2010a), 151쪽 참조. 한편 이남순(1995)에서는 『심청전』의 방각본(1906)에서도 부사격과 관형격이 모두 대표형으로 ‘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남순, 「통합범주 처숙격 설정 문제: 『심청전』과 함께」,

과도기성은 근대국어에 비일비재하다. 다만, 『최고운전』의 특징은 관형격이든 부사격이든 하나의 격 표지로 통일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23ㄱ)의 햇토리본과 (23ㄴ)의 에스틴본은 관형격과 부사격의 대표형으로 ‘의’를 취하지만, (23ㄷ)의 국도본은 ‘에’를 대표형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형격과 부사격의 혼용은 두 격조사의 형태음운론적 환경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의미적 부여는 그리 유의미하지 않다.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론적 기능은 중세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4)의 장소, (25)의 시간, (26)의 지향점의 의미는 중세국어의 조사 ‘에’와 일맥상통한다.

- (24) ㄱ. 수십히 좌우의 버러 안갓는디(數十 左右に ならひたちて)(합 3b)  
 ㄴ. 수십(數十)이 좌우(左右)의 버러 안갓는디(에 3a)  
 ㄷ. 수십(數十)이 좌우(左右)에 버러 안갓는데(국 3a)
- (25) ㄱ. 석 달만의 금제(金猪)의 변을 만나시나(三ヶ月ぶりに 金猪の 変に あいければ)  
 (합 5b)  
 ㄴ. 석 달만의 금제(金猪)의 변(變)을 만나시나(에 5a)  
 ㄷ. 석 달만에 금제(金猪)에 변(變)을 만나(국 4b)
- (26) ㄱ. 종시 닷지 아니허거든 그 고을의 가셔(終時 きゝいれずんば そのかわりに  
 ゆきて)(합 2a)  
 ㄴ. 종시(終始) 닷지 아니허거든 그 고을의 가셔(에 2a)  
 ㄷ. 종시(終始) 닷지 아니허거든 그 고을에 가셔(국 1b)

중세국어의 원인이나 비교의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미 기능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부사격조사 ‘로셔’

부사격 ‘로셔’는 중세국어에서 탈격, 즉 [출발점]의 의미가 주를 이루다가 근대국어에 이르러 [자격]의 기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관점과, 15·16세기부터 이미 [출발점]과 [자격]의 두 의미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sup>29)</sup> 전자는 ‘로셔’가 통시적으로 의미 변화를

『진단학보』 80(1995).

29) 중세국어 ‘에, 에서, 의로셔, 로셔’ 등의 탈격 조사 논의는 홍윤표, 「근대국어의 처소

겪는 것으로 보지만, 후자는 [출발점]의 중심적 의미와 [자격]의 부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가 근대국어에 이르러 [출발점]은 약화되고 [자격]이 중심적 의미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sup>30)</sup> (27ㄱ)은 [출발점], (27ㄴ)은 [자격]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28ㄴ)은 ‘로’와 ‘로셔’가 통용된 문장이다.<sup>31)</sup> 즉 ‘로셔’가 두 자질을 중세국어에서부터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 (27) ㄱ. 西湖는 王泉으로서 흘러오느니(번역박통사 상 67)  
 ㄴ. 사름<sup>3</sup>로셔 양을 머거든 양이 주거 사름 드외며 사름이 주거 양 드외야(능엄 4:30ㄱ)
- (28) ㄱ. 나는 본릭 나<sup>3</sup>내로브터 왔는 신하로셔(번소 6: 27ㄱ)  
 ㄴ. 나는 본딤 나<sup>3</sup>내 신하로(소언 5:25ㄱ)<sup>32)</sup>

『최고운전』에서도 [출발점]의 의미는 쉽게 확인된다. (29)의 ‘스매로셔’, (30)의 ‘하늘로셔’, (31)의 ‘금낭으로셔’ 등의 ‘로셔’가 [출발점]으로 확인된다.

- (29) ㄱ. 최공이 스매로셔 흐 부작을 공둥의 더지니(崔公 そでより ひとつの符作を 空中に なげしに)(향 40a)  
 ㄴ. 최공(崔公)이 사매로셔 흐 부작(符作)을 공중(空中)의 더지니(애 40b)  
 ㄷ. 최공(崔公)이 스매로셔 흐 부작(符作)을 공중(空中)에 던지니(국 37a)
- (30) ㄱ. 밤이면 하늘로셔 선녀 느려와 져를 먹기더라(よるは 天より 仙女くだりきてちをのませしとなり)(향 6a)  
 ㄴ. 밤이면 하늘노셔 선녀 느려 와 져를 먹이더라(애 6a)  
 ㄷ. 밤이면 하늘노셔 선녀(仙女) 느려와 져를 먹이더라(국 4b)
- (31) ㄱ. 금낭으로셔 부작 쓴 거슬 내여 주×여[○며] 니르되(錦囊より 符作

표시와 방향 표시의 격], 『동양학』 11(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1), 10-13쪽; 이태영, 앞의 논문(1991), 100쪽; 하귀녀,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248-249쪽; 이현희, 「『멀리서』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25-93쪽; 이지영, 「『로셔』 구문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 165(2013) 등 참조.

30) 홍윤표(1994)는 ‘로셔’의 [출발점]이 19세기에 사라졌다고 하였으나(홍윤표, 앞의 책, 1994, 485쪽), 이지영(2013)에서는 20세기 전반까지도 [출발점]의 의미가 확인됨을 제시하고 있다(이지영, 위의 논문, 163쪽).

31) 이태영(1991)에서는 ‘로’가 [자격]의 의미를 지닌 근거로, ‘나그내로 밥 머구른 옛데 직조와 일홈패리오(旅食豈才名)(두초 7:2a)’를 예로 제시하였다. 이태영, 앞의 논문(1991), 100쪽.

32) 이지영, 앞의 논문(2013), 160-161쪽 인용.

かきしを いだしあたへて 云けるは)( 핫 35a)

- ㄴ. 금낭(錦囊)으로서 부작(符作) 쓴 거슬 내어 주며 왁(曰)(에 35a)
- ㄷ. 금낭(錦囊)으로서 부작(符作) 쓴 거슬 내어주며 왁(曰)(국 27a)

‘로셔’의 격 표지는 대부분 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핫토리본 (32ㄱ)과 애스턴본 (32ㄴ)에서는 ‘로셔’로 실현되지만 국도본 (32ㄷ)에서는 ‘에셔’로 나타난다. 비록 1회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도본의 조사 실현 양상이 다른 이본에 비해 **다르고**, 근대국어 ‘로셔’와 ‘에셔’의 의미 기능이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간과할 수는 없다.<sup>33)</sup>

- (32) ㄱ. 나라호로셔 핁장을 출×헤○헤 주시니(公義より 行裝をとゝのえたまいに)( 핫 27a)
- ㄴ. 나라호로셔 핁쟁(行裝) 수정(行裝)을 출혀 주실식(에 26a)
- ㄷ. 나라에서 핁장(行裝)을 출혀 주실식(국 20b)

(32)의 ‘로셔’를 ‘-의(편/쪽)에셔’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출발점]도 되지만 ‘나라가 핁장을 차려 주시니’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주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 핫토리본 ‘로셔’의 일본어 대역어가 모두 ‘より’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より’는 동작주로 기능하는 명사구에 후행하면 주격으로 쓰이나 비동작주 명사구 뒤에서는 사격이나 탈격으로 쓰였다.<sup>34)</sup> (32)의 ‘나라’는 동작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로셔, 에셔’를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탈격이 주격으로 변하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다.<sup>35)</sup> 예를 들어, 『첩해신어』나 『병자일기』에서 ‘의게셔’, ‘씩셔’가 탈격이 아닌 주격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33) ‘로셔’와 ‘에셔’는 의미가 매우 유사하므로 그 차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현희(2006)에서는 ‘로셔’와 ‘에셔’가 모두 [출발점]으로 사용되지만 ‘로셔’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존재를 통해 나온다는 의미가 강하며 [도구]의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본다. 홍윤표(1994)에서도 두 조사가 [출발점]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로셔’가 [+동작]의 자질을 갖춘 동사와 결합하고 한 문장 내에서 도착표시어와 공기하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에셔’는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갖춘 동사와 결합하고 근대국어 이후에도 [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홍윤표, 앞의 논문, 1994, 484-485쪽). 한편 김현주(2013)에서는 ‘에셔, 의게셔, 썩셔’가 중세국어까지 모두 [출발점]의 의미를 가졌으나 근대국어 이후 ‘에셔’는 [출발점]의 의미가 자리 잡게 되고, ‘의게셔, 썩셔’는 근대국어에 감소되고 19세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개화기에 이르러 주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34) 白井純, 앞의 논문, 1-14쪽 참조.

35) E. L. Palancar, *The Origin of Agent Marker*(Berlin: Akad, 2002), p. 155.

36) 김현주(2013)는 주격조사라는 용어보다 ‘주어 표시’라는 소극적 용어를 선택했으며

그러나 이러한 범언어학적 논리를 수용하더라도 (32)의 ‘로셔’와 ‘에셔’를 주격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로셔’와 ‘에셔’가 (32c)에서 주격으로 기능한다면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술관계가 호응되지 않는다.<sup>37)</sup> 주격조사로 쓰인 것이라면 (32a)의 ‘로셔’는 존칭 ‘씨셔’로 실현되고 (32c)의 ‘에셔’는 ‘씨로셔’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32)의 ‘로셔’와 ‘에셔’를 주격조사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근대국어의 과도기적 양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언어 현상 자체가 ‘탈격 > 주격’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하나의 예만으로 격 표지의 변화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최고운전』의 한글본 중에서 소설 내용과 구성이 일치하는 핫토리본, 에스틴본, 국도본의 서지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 후 근대국어 격조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글 필사본인 핫토리본과 에스틴본, 한글 활자본인 국도본은 음운, 어휘, 형태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국어의 언어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우선 격조사 양상부터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 이본의 격조사 양상은 130년 이상의 간격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통시적 변화만 보였다. 주격조사 ‘가’가 어느 이본에도 확인되지 않았고 관형격 ‘에’가 19세기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등 근대국어의 통시적 변화가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 변화는 ‘핫토리본 → 에스틴본 → 국도본’ 순서로 필사 및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朴眞完(2005)은 『첩해신어』의 ‘의셔, 겨셔, 겨오셔’ 등을 주격조사로 처리하였다. 이때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가 모두 ‘より’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朴眞完, 『『朝鮮資料』의 新研究: 日韓語의 對照から』, 京都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41-43쪽).

37) 이현희(2006)에서는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의 관계에 근거하여 ‘의로셔/의게셔’를 단체주격 ‘에셔’와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이현희, 앞의 논문, 각주 75). 그러나 이지영(2013)은 ‘의셔’나 ‘의게셔’를 주격이 아닌 [출발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관계가 규칙적이지 않고, 일부 자료에서 국한되어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문을 품게 한다. 오히려 이본들의 저본, 즉 어느 필사본을 보고 필사하였는가에 따라 『최고운전』의 언어가 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까지 갖게 하였다. 세 이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격조사 외에 음운, 형태, 통사적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지면관계상 음운, 어휘, 통사 구조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한글본은 여러 이본이 현존하므로 이들을 검토해보면 이들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리라 본다.

원래 필자가 구상한 것은 격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세 이본의 관계를 천착하는 것이었으나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격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그 변화가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시대적 폭이 더 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본다. 다른 한글본과 병행하여 국어학적 접근을 진행한다면 한글본 간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고전소설 분야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본 간의 선후관계 또한 확인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은 『최고운전』 한글본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음운, 어휘, 형태, 통사적 접근은 지면관계상 후속 연구에서 답을 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2010.  
김선효,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연구』. 역락, 2016.  
범세동(范世東), 『話東人物叢記』. 전남대학교출판부, 1993.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이승욱, 『국어 문법체계의 史的 研究』. 일조각, 1973.  
허웅, 『16세기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1989.  
홍윤표, 『近代國語研究(Ⅰ)』. 태학사, 1994.

- 橋本進吉, 『助詞, 助動詞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69.  
士井忠生, 『日本大文典』. 東京: 三省堂, 1955[原著: Rodriguez(1604-8)]  
山田昌裕, 『格助詞“カ”の通時的研究』. 東京: ひつじ書房, 2010.  
山田孝雄, 『日本文法論』. 寶文館出版, 1933.  
石垣謙二, 『助詞の歴史的 研究』. 東京: 岩波書店, 1955.  
松尾捨治郎, 『國語法論攷』. 白帝社, 1961.  
此島正年, 『國語助詞の研究』. 東京: 櫻楓社, 1973.

Palancar, E. L., *The Origin of Agent Marker*. Berlin: Akad, Verl, 2002.

### 2. 논문

- 고광모, 「주격조사 ‘가’의 발달」. 『언어학』 68호, 한국언어학회, 2014, 93-118쪽.  
권택경, 『최고운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선효, 「의사관형구조 ‘에의’의 형성 과정과 요인」. 『국어학』 55, 국어학회, 2009, 105-124쪽.  
\_\_\_\_\_, 「〈교린수지〉에서의 조사 ‘의’와 ‘에’의 분포와 특성」. 『개신어문연구』 31, 개신어문학회, 2010, 33-54쪽.  
\_\_\_\_\_, 「근대국어의 조사 ‘의’의 분포와 기능」. 『어문논집』 46, 중앙어문학회, 2011, 141-162쪽.  
\_\_\_\_\_, 「일본 근대 한어 자료에서의 부사격 ‘의’의 과잉 양상과 그 요인」. 『국어학』 67, 2013, 223-250쪽.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 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4-15쪽.  
김현주, 「주격표지 ‘께서’의 형성에 대하여」. 『어학연구』 41권 4호, 2013, 133-158쪽.  
민영대, 「崔忠傳 이본연구」. 『한남어문학』 7·8, 1982, 17-50쪽.

- 박일용,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 2010, 85-115쪽.
- 박진완, 「『朝鮮語譯』의 모음 표기 고찰. 『국어학』 48, 2010a, 131-155쪽.
- \_\_\_\_\_,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에스틴 문고의 한글 자료. 『국어학』 46, 2010b, 199-228쪽.
- 송민,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1988, 25-34쪽.
- 이강민, 「개화기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일본학보』 67, 2006, 65-80쪽.
- 이경희, 「근대국어의 격조사. 『근대국어의 이해』, 박이정, 1998.
- 이남순, 「통합범주 지속격 설정 문제: <심청전>과 함께. 『진단학보』 80, 1995, 291-306쪽.
- 이승희, 「중세국어 'NP1엿 NP2' 구성의 의미 유형에 대한 고찰. 『국어학』 54, 2009, 197-224쪽.
- 이지영, 「'로서' 구문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 165, 2013, 151-182쪽.
- 이태영, 「근대국어 '띄어, 겨서'의 변천 과정. 『주시경학보』 8, 1991, 88-107쪽.
- \_\_\_\_\_, 「국어 격조사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1997.
- 이현희, 「'멀리서'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25-93쪽.
- 정광, 「주격 '가'의 발달에 대하여: 근대국어 자료의 해석을 중심으로. 『우리문화』 2, 우리문화연구회, 1968.
- 정병설,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 <崔忠傳>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7-55쪽.
- 정병욱, 「최문헌전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55/1979.
- 정승혜, 「일본에서의 한어 교육과 교재에 대한 개관. 『이중언어학』 30, 2006, 335-353쪽.
- \_\_\_\_\_, 「와세다대학 핫토리문고 소장 <조선어역>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40, 2009, 153-183쪽.
- 최전승, 「19세기 후반 전라방언의 특질 몇 가지에 대한 대조적 고찰: 중간본 <여사서 언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1, 2002, 27-80쪽.
- 편무진,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 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 표기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43, 2009, 83-104쪽.
- 하귀녀,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홍윤표, 「근대국어의 처소 표시와 방향 표시의 격. 『동양학』 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1, 35-54쪽.
- \_\_\_\_\_, 「근대국어의 통사론. 『동양학』 2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5-44쪽.
- 황선엽, 「중세·근대국어 속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2016,



71-95쪽.

후쿠이 레이, 「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 『규장각』 39, 2011, 241-376쪽.

岸田文隆, 「早稻田大學服部文庫所藏の「朝鮮語譯」について—「隣語大方」との比較」.  
『朝鮮學報』 199・200, 2006, 1-35.

白井純, 「助詞ヨリ/カラの主格表示用法について — キリシタン文献を中心として」.  
『國語學』 52卷 3號, 2001, 1-14.

朴眞完, 『朝鮮資料』の新研究: 日韓語の對照から』, 京都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국 문 초 록

이 글에서는 『최고운전』의 한글본 중에서 소설 내용과 구성이 일치하는 핫토리문고본(1750, 핫토리본), 애스턴본(1700?~1800?), 국립중앙도서관본(1883, 국도본)을 통해 근대국어의 격조사 양상을 살펴보았다. 핫토리본과 애스턴본은 한글 필사본이며 국도본은 한글 활자본이지만 소설의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여 근대국어의 언어 변화를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세 이본을 검토한 결과, 주격조사는 중세국어 ‘이, 1, ∅’ 외에 근대국어에 형성된 ‘씨서, 겨오서, 계오서, 썸오서’가 확인되었으나 ‘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목적격조사는 국도본에 이르러서야 ‘을/를’이 음운론적 변별성을 보였고, 보격조사는 ‘이, 1, ∅’ 외 일본어의 간접으로 인한 ‘에’가 국도본에서 소수 확인되는 특성을 보였다. 관형격과 부사격은 ‘의’와 ‘에’ 중에서 하나의 조사를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기술하는 양상을 보였고, 부사격 ‘로써’와 ‘에서’는 탈격으로만 사용되고 주격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세 이본의 격조사가 다른 근대국어 자료에 비해 격조사의 동시적 변화가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근대국어의 형태음운론적 과도기성과 저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고일** 2016. 12. 13.

**심사일** 2017. 1. 9.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최고운전』(*Choigowun*), 핫토리문고본(Hottori library script), 애스턴본(Aston script), 국립중앙도서관본(National library of Korean script), 근대국어(Modern Korean), 격조사(Korean case markers)

## Abstracts

Characteristics of Its Case Markers in Korean Novel Choigowun:  
Hottori Library Script, Aston Script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n Script  
**Kim, Sun-hyo**

This paper explored those characteristics and dispersed patterns of case markers in Hottori Library Script(HLS, 1750), Aston Script(AS, 1700?-1800?)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n Script(NLKS, 1883) of Korean novel *Choigowun*. Although HLS and AS are Korean manuscripts and NLKS Korean printed novels, those scripts are comprised of same contents and constructions. So these are very useful scripts for searching diachronic changes in Modern Korean. In those scripts subjective markers had used 'yi(이), l(ㅣ), Ø, gyeo-o-syeo types(겨오셔/계오셔/췌오셔), sgai-syeo(씩셔)' but not 'ga(가)' and Objective markers could distinctively be used after NLKS. Genitive and adverbial markers selected only one marker of 'eui(의)' and 'ye(에)' in a script, adverbial 'ro-syeo(로셔)' and 'ye-syeo(에셔)' had only ablative feature not subjective. Consequently, those scripts were not positively reflected in diachronic changes of case markers because of morph-syntactic transition in Modern Korean.